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제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9월 18일)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서산 부석사 관음상 결국 다시 일본으로

10월 26일 대법원 1부 상고 기각
2심과 달리 부석사 권리 주체 인정
국제사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적용
日대마도 관음사 취득시효 인정해
원우스님 "패륜적 판결" 울분 토해
조계종 "반역사적 최악 판례" 성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이 결국 우리의 품으로 환지본처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월 26일 2호 법정에서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약 7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부석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심과는 달리 관음상이 제작 · 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임은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서주 부석사가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하여 원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고 본 2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사법 부칙 등에 따라 관음상 소유에 대한 준거법이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마도 관음사가 관음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1953년 이후 20년이 지났고 취득 시효가 완료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관음상이 소재하던 일본의 민법이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며 "대마도 관음사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당시 일본의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서산 부석사가 관음상의 원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대법원 재판부를 강하게 힐난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600년 전 이 땅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지키다가 쓰러져간 고려인들이 있었다.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그들의 등에 다시 칼을 꽂았다"며 "이것은 패륜적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스님은 "대법원은 무력 ·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 해줬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이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어떻게 고려인의 후손인 우리가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온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는 "안타깝고 몰지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악의적 취득과 점유를 인정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많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재판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고 전근대적인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점유 기간이 인정된다는 법적인 논리만 형성되면 문화재들을 환수할 길이 없다"면서 "문화유산 회복에 있어서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도 대변인 우봉 스님(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약탈돼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일 뿐 아니라,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강제로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은 반역사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며 "우리 종단은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불교미술 명장 한자리… 불미전 개막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진우 · 조계종 총무원장)는 10월 25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제32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불미전에는 회화 93작품, 조각 18작품, 공예 34작품, 미디어 아트 13작품 총 158작품이 출품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대를 반영한 미디어 아트 부문이 신설돼 첫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미디어 아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염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관람하고 있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후보 정여 대종사 추대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문중 화합 노력"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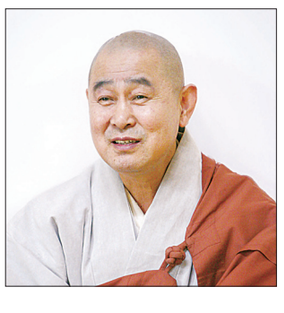
금정총림 범어사 새 방장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정여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범어사(주지 보운)는 10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추대를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추천된 정여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새 방장후보에 추대했다. 산중총회에는 377명의 구성원 가운데 241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산중총회에 참석한 정여 대종사는 "여러분의 뜻을 잘 수용하고 문중별 의견을 받들어 원만한 소임을 살도록 하겠다"며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으로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인사했다.

정여 대종사는 산중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은 소납을 차기 방장후보로 추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범어사 문중화합을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라며 "범어사와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여 스님은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김천 수도암과 현풍 도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7년 결사를 성만하고, 봉암사와 대흥사, 백담사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부산불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여선원 선원장, 세상을향기롭게 대표, 조계종 법계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05년엔 제17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한바 있다.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산중총회에선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장은 선 · 교 · 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 자격이 필요하다.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여 대종사의 방장 추대는 11월 1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WISE캠 총장 후보자 4인 확정

동국대 WISE총추위 2차회의서
오는 11월 6일 소견발표회 개최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후보 대상자가 4인으로 확정됐다.

동국대 WISE총추위(위원장 범해)는 10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동국대 WISE총추위는 총장 후보대상자로 △구본철 글로벌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완하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 △서운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WISE총장후보대상자들의 소견발표 방법과 일정을 의결했다.


구본철


류완하


박용기


서운교
(가나다순)

소견발표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를 한다. 온라인 중계는 동국대 WISE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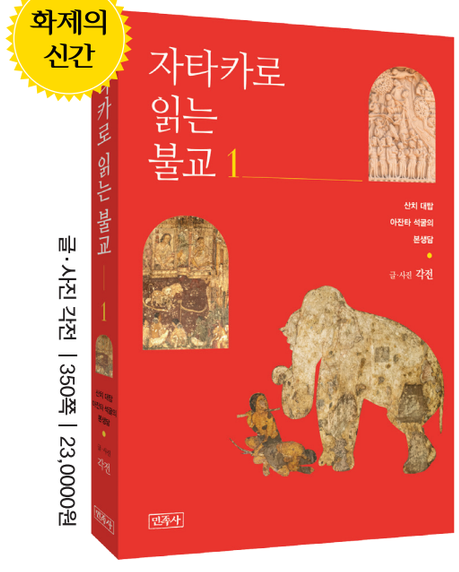
이후 WISE총추위는 11월 7일 전체회의에서 WISE총장후보자를 선출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